

## News

### 내년이라고 다름까... '실탄' 쌓기 바쁜 은행들

머니투데이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신증자본증권(영구채), 후순위채권 등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 국제결제은행 비율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지작업...  
"코로나19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올해 말과 내년 기업과 가계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급작스런 대출 수요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

### 대기업 대출 연체 급증... '민는 도끼'에 발등 찍힌 시중은행

데일리안

국내 4대 은행이 대기업들에게 내준 대출에서 제 때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금액이 올해 하반기 들어서만 500억원 가까이 불어나...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은행들로서는 대기업 여신 리스크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 시중은행장 절반이 임기 끝나다... 금융권 인사태풍 오나

이데일리

금융권 최고경영자들의 대거 '물갈이'가 예고된 상태... 시중은행의 은행장 중에서 절반인 9명이 올 연말 혹은 내년 초 임기 종료로 앞뒤...  
"연말 · 연초 금융권 CEO 임기를 두고 인사 적체 해소와 세대 교체 등 인적 쇄신 목소리는 꾸준히 있다"

### 연말 높아지는 가계대출 문턱... 전세-주택담보대출도 옥죄기

동아일보

시중은행들이 연말을 앞두고 내부 대출 한도를 맞추기 위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가... 신규 대출이나 주택보증 금융 상품을 잠정 중단하거나 대출 한도 상향을 제한...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규제가 심하다 보니 은행 입장에서 대출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다"

### 금융위, 이달 '네번째 실손보험 개편안' 공개

디지털타임스

금융당국이 3년만에 다시 실손보험을 개편하기로... 의료이용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  
개정된 실손보험은 약관개정 등을 거쳐 내년 4월에 출시될 전망... 새로운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낮아지는 대신 보험료가 기존보다 낮아 보험료수입이 줄 수 있어...

### 에이플러스에셋, 공모가 주당 7500원... 예상 밴드 '하회'

헤럴드경제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의 공모가격이 7500원으로 확정... 희망공모가격 밴드를 하회하는 수준...  
모집가액 총액도 이에 줄어... 하단 기준으로 293억7990만원이 예상됐으나, 총 167억8851만원...

### 라임 판매 증권사·CEO 징계 결론날까... 오늘 3차 제재심

뉴스1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판매 증권사들과 전 · 현직 최고경영자 등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 위해 10일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날 제재심에서는 증권사와 CEO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 앞서 DLF 사태에 대한 제재심도 3차례 열린 끝에 결론...

### 한국 투자자, 미국 대선 전후로 해외주식 계속 사다

한국경제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대선 전후의 불확실성 확대에도 해외주식 매수에 열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조정장을 매수 기회로 보고 적극 매수에 나섰다...  
지난 6일까지 5거래일간 한국 투자자들은 3억9859만달러를 해외시장에서 순매수...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